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4.8.(금) 10:30, 차덕철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금강산 해금강호텔 해체 움직임과 관련한 통일부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해금강호텔을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협력을 상징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해금강호텔을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있는 것은 상호존중과 협의에 입각한 남북 공동노력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 투자자 자산의 보호라는 남북 당국 간 합의는 물론, 모든 사안들을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 온 사업자와의 신뢰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금강호텔 해체에 대한 우리 측의 충분한 설명 요구와 협의를 시작하자는 정당한 제안에 북한이 전혀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이라도 북한은 해금강호텔 해체에 대해 우리 측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조속히 호응해 오길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국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통일부 일정과 관련해서는 주간 보도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사전에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7건의 서면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금강호텔 관련 통일부 입장을 발표했는데 지금 통일부 입장을 발표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북한의 반응 없이 일방적인 해체 작업이 지속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요?

<답변> 정부는 지난 3월 초부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여 왔으며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지난주 우리 측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이후 현재까지 북측의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해금강호텔의 해체가 어느 정도까

지 진척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지요? 해금강호텔 외에 다른 시설과 관련한 특이 동향이 있는지요?

<답변> 정부는 현재 해금강호텔에 대한 해체작업이 꾸준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체 진척상황 등 정보 사항은 설명해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강산 호텔을 제외한 다른 시설의 해체 동향은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북측이 현재 해금강호텔을 해체하는 배경과 의도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요?

<답변> 북한의 해금강호텔에 대한 해체 움직임과 관련하여 북한의 이러한 의도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안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언제 북측에 구두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추가로 북한의 입장을 문의한 적이 있는지요?

<답변> 먼저, 그간 남북 간 구체적인 연락 동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점 등 상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지는 않아왔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난주에 우리 측 입장을 북측에 구두로 전달한 이후 북한의 반응과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일주일 간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를 통해 김일성 생일 계기 북한의 열병식 준비 모습이 구체적으로 포착됐는데, 통일부는 이번 동향에 대해서 어떤 점을 주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군은 북한의 열병식 행사 준비 동향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계속해서 주시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생일 등 주요 일정을 계기로 열병식 등 행사를 해온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이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도 정치국 회의 등을 통해서 성대하게 경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전례, 북한이 그간 밝혀온 입장, 우리 군이 포착하고 있는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북한의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갱도 복구작업이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습니

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유력한 때를 구체적으로 언제로 예상하는지, 이와 관련한 통일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난 2018년 5월 폭발했던 갱도 중 일부의 복구로 추정되는 활동이 식별되어 한미당국이 면밀히 주시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의 구체적인 시기 등에 대해 예단하기보다는 향후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나가고자 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입니다. 북한은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와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의해온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한미 외교당국에서 그간 잘 사용하지 않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라는 표현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북관계 주무부처로서 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한 만큼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조속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전에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